가게마다 출입 경사로…이동권 '문턱' 낮추는 광산구

모두가 편리한 무장애광산 만들기
2018년부터 260곳 보행장애물 제거
올해도 100여 곳 경사로 설치 지원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을 찾은 한 장애인이 휠체어 상태 등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 광산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광산' 실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광산구에 따르면 2018년부터 '모두가 편리한 무장애 광산'을 목표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신축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도 드나들 수 있도록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민간시설이나 오래 전 지어진 공공시설은 이 같은 편의시설이 없는 게 현실이다.

또 건물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의 높이 차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과 접근을 가로 막고, 정보 향유 제약 등 삶의 질을 저하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광산구는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내 여러 시설을 조사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권의 '사각지대'인 민간시설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 첫해인 2018년 장애인 당사자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음식점, 약국, 편의점, 슈퍼 등 총 35곳에 경사로를 만들었다. 광산구는 이어 2019년 197개 시설, 2021년 30개 시설에 경사로를 추가 설치하는 성과를 냈다. 구는 또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 곳곳에 급속충전기도 구축하고 있다. 구는 대표협의체를 통해 확정한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2018년 11곳, 2019년 17곳 등 총 28개 충전기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2020년부터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9개 공동주택 출입구 경사로에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다.

도시 곳곳에 있는 문턱을 없애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광산구는 보행장애물 제거사업에 동의한 231개 다중이용시설을 조사해 현 경사로 높이와 시설 개선 공사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1차 사업 대상 38곳을 정하고, 이달말까지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신청시설과 1차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벌여 70~80곳에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고, 총 100여 곳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는 앞서 사업이 완료된 260여 곳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나 실제 사용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도시시설과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선 활동,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자발적 실천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장애인, 임산부, 유모차 이용 주민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갈수록 중시되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광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통(統) 정보 전산화 안내지도 온라인 서비스

광주 광산구는 "관내 통(統)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광산구 통 안내지도'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광산구 통 안내지도는 관내 통 구역 등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지도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체계적인 통 정보 관리를 통한 행정효율 및 시민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제작됐다. '통'은 행정 일선에서 자주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안내 자료가 없어 실무자 및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광산구는 광산구 21개 행정동, 총 779개통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 표준화한 후 온라인 지도로 제작했다. 모든 제작과정에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과정으로 광산구에 배치된 '빅데이터' 청년인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광산구 통 안내지도는 광산구 공공데이터 플랫폼광산imap(imap.gwangsan.go.kr)에서확인할 수 있다. 메뉴나 지도의 행정동 이름을 클릭하거나 해당 주소를 입력하면 행정동, 법정동, 통 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광산구는 통장단 업무 등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휴대가능한 통 지도를 배부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비스로 가장 기초적이지만 또 알기 어려운 통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실무자와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데이터 갱신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지난달 31일 개장한 더불어락노인복지관 생태텃밭에서 시민들이 모종을 심고 있다.

"푸른 채소 기르며, 공동체 함께 가꿔요"

광산구 더불어락노인복지관
'복지숲 생태텃밭' 개장

광산구 더불어樂(락)노인복지관은 "지난달 31일 마을주민이 직접 가꾸고 운영하는 '복지숲 생태텃밭'을 개장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관 옆 운남근린공원에서 조성된 생태텃밭은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교류함으로써 도시에 푸른 숨을 불어 놓는 녹색 공간이자 세대와 문화가 교류하는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이다. 가로 2m, 세로 1m, 높이 50cm 상자텃밭 29개가 마련됐다.

앞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서를 받고 분양 추첨도 진행했으며, 생태텃밭 1년 농사를 책임질 29세대를 선정했다.

주민들은 앞으로 상추, 치커리, 부추, 열무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면서 생태일기도 작성하게 된다. 광산구는 텃밭 농사와 함께 주민의 교류와 세대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추수 감사 파티', 수확 평가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생태텃밭은 자연 생태계를 경험하고, 마을주민, 어르신, 아이가 함께 어울리고 가까워지는 열린 공간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출입기자단 지방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9일 오후 4시 수완문화체육센터

오는 6·1일 치러지는 광산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광산구 출입기자단(11개사)이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열린다. 9일 오후 4시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광산구청장 후보 초청 토론회'는 '6·1 지방선거, 광산구민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학실, 박병규, 이영순, 윤난실, 윤봉근, 최치현 등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6명이 참석한다.

행사를 주관한 광산구 출입기자단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를 대상으로 초청이 이뤄졌으며 민주당의 공천 결격 사유에 해당된 후보자는 초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론 진행을 위해 광산구 관내 시민들에게 후보자 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을 사전에 접수 받고, 이를 근거로 후보자 자질 평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후보자별 공통질문, 개별질문, 상호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전담할 패널로는 과학기술원 김영집 부총장과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김정규 교수가 맡아 2시간 가량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5개 구청 가운데 출입기자단이 주관하는 첫 토론회로, 각종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유권자들이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토론 과정에 제기된 후보자 공약사항은 출입기자단 지면에 반영하고 별도로 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지방세 정보 빠르게"…광산구 SNS채널 개설

광주 광산구는 "2022년 행복시책 일환으로 '광산구 지방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개설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업무 문화가 일상화됨에 따라 시민이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시민에게 수시로 변화하는 지방세 관련 각종 정보를 손쉽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카카오톡에서 광산구 지방세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광산구는 해당 채널을 통해 각종 지방세 관련 정보 및 세정업무 홍보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스마트톡 등을 이용해 납세자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년 달라지는 세법 등 지방세에 대한 새로운 소식과 각종 안내사항도 채널을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비대면 소통 창구를 조기에 활성화해 광산구 세무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다"면서 "앞으로 변화하는 납세환경에 맞춰 '챗봇 1대1 채팅'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 6월까지 차영경 작가 방 전시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이 이달부터 6월까지 차영경 그림책 작가의 방 전시를 개최한다.

'마음식당 4호점'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이야기꽃도서관 3층 그림책특화공간 내 작가실에서 진행된다. 서울 책방사춘기, 구로기적의도서관, 성미작은도서관에 이어 이야기꽃도서관에 4호점을 오픈한다.

차영경 작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재치 있게 보여주는 그림책으로 사랑받고 있다. 독창적인 형태와 유쾌한 색채를 사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그림책 중 요리조리 바뀌는 마음이 담긴 '마음먹기'와 마음을 위한 요리가 담긴 '마음요리'를 주제로 구성됐다. 전시실은 작가의 작품 원화와 클레이(점토)로 만든 아기자기한 캐릭터 제작품을 이용하고, 전시장 내부를 식당으로 꾸몄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5월 7일에는 작가 강연도 있다. 그림책 제작과정 소개와 더불어 '클레이(점토)'를 활용한 체험을 통해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차 작가는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마음식당을 찾아달라"며 "준비한 특급 마음요리로 많은 분들이 따뜻하고 든든히 마음을 채워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